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thmschae@yahoo.com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standrewoak@gmail.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흔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한국학교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토요일 오전 9:40-12:50			

한심한 큰빛이끼벌레들...



[제 1독서] 지혜 12, 13. 16-19
 [화답송] 시편 86(85). 5-6. 9-10. 15-16 (◎ 5ㄱ)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 
 주님 당신은 어 질 고 용 - 서 하 시 는 분이시옵니 다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는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
- 주님, 당신이 만드신 민족들이 모두 모여 와,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에 영광을 바치리이다.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당신 홀로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 당신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와 진실은 넘치시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

[제 2독서] 로마 8, 26-27
 [복음환호송] 마태 11, 25 참조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복음] 마태 13, 24-43 또는 13, 24-30

성가	8시 미사	입당 76	봉헌 220 512	성체 182 197	파견 461
	11시 미사	입당 76	봉헌 220 512	성체 182 197	파견 461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16주일(7월 20일)		연중 제17주일(7월 27일)		연중 제18주일(8월 3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바오로(명국)	황테레사(혜정)	임루카(승원)	전베로니카(진영)	정스텔라(애리)	이엘리사벳(자영)
제 1 독서	강요한(신호)	구미카엘(창희)	최베네딕토(환준)	김사비노(영준)	정프란치스코(일환)	허라우렌시오(순구)
제 2 독서	김안젤라(영선)	이베로니카(경란)	최베네딕다(수영)	김테레사(승희)	정글라라(영희)	이콜롬바(정연)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하느님은 농부입니다.

“오늘 점심으로 뭐 먹고 싶으세요?”, “전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그럼 낙지 볶음 어떠세요?”, “전 매운 것은 못 먹어요.”, “그럼 뭐가 좋겠어요. 고기?”, “고기는 미국산일까 봐 겁이 나고요”, “그럼 탕으로?”, “탕 속에 육수가 어떤 것으로 끓였는지 모르겠어서”, “그럼 면 종류로 할까요?”, “제가 소화력이 약해서”, “회는 어떠세요?”, “요즘 일본에서 들어와서 걱정되지 않아요?”, “그럼 뭐 좋아하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꽃게나 찜 종류는?”, “꽃게는 찜 것 같고, 찜 종류는 맵지 않나요?”, “그럼?”, “파스타나 피자는 어떠세요?”, “그럼 그걸로 할까요?”, ‘면 종류는 소화가 안 된다면서????’

저를 방문하신 어느 수녀님들과 식사 한 끼 하기 위해서 나눈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나누면서 문득 신자분들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제와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실까?’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뭐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이 참 난감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보면, 우리는 자신의 몸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나 유기농뿐 아니라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을 골라 먹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기보다는 교리에서 가르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으로 산다는 복음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생활하고 있거나 않나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70년대 경제개발계획 이후 급속도로 발전한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도시화의 물결은 우리에게 농민의 이미지를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농촌과 어촌의 삶, 그리고 밭을 갈구며 살아가는 분들의 삶을 잃게 했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하느님은 농부입니다.” 라는 이미지를 잃게 합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서 농민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려지지 않게 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역

시 농민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가라지와 밀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밀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 파종하고 언제 수확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농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묵상해 봅니다. 자연을 보지 않고 살아온 나날이 길면 길수록, 그저 아무런 감사 없이 음식물들을 섭취하고 있을 때 우리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고 있거나 않은지 다시금 뒤돌아 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 주일입니다. 일회성의 농민 주일이 아니라 늘 우리의 기억 중심에서 그분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공유하고, 공존하기 위한 지혜로서 농민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관심 안에 “하느님은 농부입니다.” 라는 이미지가 각 개인에게 그려지지 않을까요? 오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요환 요한세례자 신부
교구 사회사목국장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밀밭 가운데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것을 주인과 종들이 봅니다. 그러자 종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마태 13,28) 하고 주인께 문제 해결을 건의합니다. 언뜻 보기에 그것이 최상의 해결책 같습니다.

악(惡)이 보이기에 뽑아 버리고 싶은, 아니 뽑아야 할 것 같은 사명감에 불탑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의 악에 관하여, 혹은 타인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 매일 이야기거리가 풍성합니다. 그 사이에 밀밭이 망가지고 옆에 있는 멀쩡한 밀알들이 흩뿌려져도 잘 모릅니다. 어느 때는 그냥 악을 처단하는 용감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가끔 지적하는 말로 출근길 남편의 마음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온종일 집안일로 고생한 부인의 마음을 한마디의 불편한 말로 엉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 하나 때문에 서로 지적하느라 전체가 들썩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정의를 실천하는 파수꾼인 양 관찮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밀밭을 향해 용감하게 돌진해도 됩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완벽함을 명분으로 흠 없는 공동체, 흠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심판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벽주의나 무결점(無缺點)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완벽주의의 대가는 무결실(無結實)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인의 판단은 좀 다릅니다. 밀밭 자체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밀 수확 때의 풍성함(겨자씨와 누룩의 경우에서도)을 기다려 주고, 견디어 주십니다. 결실은 견디는 자의 몫입니다. 너와 함께 하는 것,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 이 사회를 유지하는 것 등과 같이 살기 위해서 견뎌 주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결실의 시간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견디며 사는 것

도 큰 사랑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확 때까지” (마태 13,30) 기다려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하느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건강, 구원, 재산, 자식, 복 등)의 시기는 내 생각과는 다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정한 시간까지 내 마음과 내 삶에 심어 주신 좋은 것(밀)을 발견하고, 보호하고, 감사하고, 키우는 것이 내가 해야 할 몫입니다.

아직은 결점투성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몇 소중한 아름다움이 하느님의 진노조차 참고 견디게 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을 선함과 아름다움은 비록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이지만, 풍성한 결실을 위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라지가 섞여 있다 해도 소중한 것들이 그 속에 자라고 있음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강귀석 신부
명일동성당 주임

말씀의 향기

대자 요셉에게 용서를 빌며

올해 사순 때의 일입니다. 예비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분께서 조용히 저를 찾았습니다. “베드로씨! 젊은 형제 가정이 지금 예비자 교리를 열심히 받고 있으니, 형제님 부부께서 신앙생활을 잘 인도해 주었으면 합니다.” 순간 약간 머뭇거리다 “네.” 하고 답하고 말았습니다. 준비 없이 멋모르고 대자를 맞이했던 오래전 기억 때문입니다.

요셉은 20여 년 전 저의 대자였습니다. 아는 형제로부터 특별히 요셉의 대부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같은 본당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어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간곡히 부탁하기에 하는 수없이 대자로 맞았고, 몇 년 동안은 서로 연락하며 성의를 다해 돌봐 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지방에 일이 많아 주말마다 내려가는 바람에 만남이 뜸해졌고, 급기야 서로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 후 요셉이 냉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더 신경을 썼다면 요셉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죄지은 마음 때문에 한동안 선뜻 대자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또 그런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날 성당에서 기도하며 못한 제 모습을 돌아보다가, 문득 아버님의 친구분이기도 한 대부님이 생각났습니다. 영세 대부이자, 견진 대부이신 마르코 대부님은 제가 지금의 본당으로 이사를 왔을 때, 성당 사무실에 직접 전화해서 레지오마리아 남성쁘레시디움 단장님 연락처를 알아내시고는, 그분을 통해 제가 레지오 활동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부님의 그런 세심한 정성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 년에 한 번씩은 꼭 집사람과 함께 대부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인사드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좋은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대부님과의 만남을 떠올리면 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

곤 합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지난 부활 세례식 때 대자인 바오로 형제에게 촛불을 전해 주었습니다. 세례식이 끝나고 함께 늦은 점심을 하면서, 대자로부터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느낌을 진솔하게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는 바오로 형제 부부에게 복음정신으로 성가정을 행복하게 가꾸며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고, 늘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로 대자를 맞게 된 일을 하느님께 보속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다시 한 번 우리 부부에게 하느님을 영접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 있을지 모를 대자 요셉을 위해 용서를 빌며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 3,5)

김병각 베드로
경향신문 부장
전 서울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 회장

성경산책(구약)

나훔서, 하바쿠서

예언자는 때로 미래를 확신하며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위로받은 이’ 라는 뜻의 이름을 지닌 예언자 ‘나훔’ 은 어지럽고 어두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리 적이 크고 많더라도(나훔 1,12) 결국 주님께서 승리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로하고 위안을 줍니다.

나훔서는 3장과 총 47절로 이루어진 작은 분량의 책이지만, 그 안에 다양한 요소를 빼곡히 담고 있습니다. 머리글에(나훔 1,1) 이어 신화적인 표상의 알파벳 시편과(나훔 1,2-8) 역사적 신탁이 연이어 나오고(나훔 1,9-2,3), 끝으로 니네베의 패망을 노래합니다.(나훔 2,4-3,19) 이렇게 신화와 역사가 교차하고 유다와 니네베의 신탁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신학적 측면에서도 나훔서는 다양한 요소를 충실히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초시간적이고 신화적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온갖 자연현상을 지배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열정을 지니신 분이시고(나훔 1,2), 동시에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불한당, 약탈자 등 가난한 이를 괴롭히는 자들을 거슬러 참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나훔 2,1.3) 이렇게 작은 분량에 하느님의 다양한 속성을 충실히 전하는 나훔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참 위로의 근원이심을 선포합니다.

나훔은 거대한 제국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가 패망한 사건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큰 교훈을 주시려고 몸소 니네베를 본보기로 삼으신 것입니다.(나훔 3,6) 자연과 역사를 주재하시는 하느님을 확신하는 나훔은, 대제국의 수도가 패망하는 역사적 혼란의 한 가운데에서, 작은 백성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잃지 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바쿠서도 역시 3장과 총 56절의 작은 분량에 다양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머리글(하바 1,1)에 이어 예언자의 탄원과 하느님의 응답이 두 번씩 교차합니다.(하바

1,2-2,6) 하바쿠 예언자의 첫째 탄원에 주님께서는 칼데아의 정복자가 행군할 것을 보여 주십니다.(하바 1,5-11) 이스라엘을 향해 큰 군대가 진군하는 묘사에서 늘 당하고 살았던 작은 나라 국민의 격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예언자의 둘째 탄원에 주님은 앞으로 올 이스라엘의 임금이 성실하지 않고 거만할 것임을 예고하십니다.(하바 2,4-5) 그리고 다섯 가지 불행 선언(하바 2,6-20)이 이어집니다. 하바쿠 예언자는 이렇게 현실도 힘들고 가까운 미래도 밝지 않은 험난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바쿠서를 잘 읽으면,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하바 2,4)는 등의 희망의 말씀이 군데군데 보석처럼 박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찬미의 노래를(하바 3장) 통해 주님의 창조적 권능과 역사의 주재하심을 노래하며 “주 하느님은 나의 힘” (하바 3,19)임을 고백합니다. 하바쿠서는 가장 어려울 때에 신앙의 시각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큰 인도와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주원준 박사
한님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7월20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3주기	친구들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이마리아(명자)	이요셉(건용)
	연	채다니엘(인국)	가족
	연	오마리아(제성)	김데레사
	연	유베드로/유하비에르	임안젤라
	연	김다니엘(영택)	김엘리사벳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계영실	이카타리나(영보)
	연	조난옥	김데레사
	생	구요셉/베로니카가정	9구역원
	생	김헨리코/요안나가정	9구역원
	생	김스테파노/올리비아가정	9구역원
	생	이요셉(세강)	유마리아
7월22일 화	연	최베드로(취종)	가족
	생	이막달레나(선희)축일	은총의어머니 Pr.
	생	이막달레나(선희)축일	김카타리나
7월23일 수	연	정벤자민(대업)3주기	정데레사(혜경)
7월24일 목	연	오마리아(제성)	이베로니카
7월25일 금	연	이마리아(명자)	이요셉(건용)
7월26일 토	생	채줄리아	채헬렌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2	191	-	273
헌금	\$602	\$1,057	-	\$1,659

< 교무금 > \$5,060

조관식(7) 강시구(1-7) 정병구(7-8) 정지문(7-8)
 유춘성(6) 유경돈(6) 박영실(7-8) 김관숙(7)
 채용분(7) 이영길(5-6) 염명련(6-7) 이경섭(4-7)
 김영민(7) 이흥구(7-8) 이완수(7-8) 김영길(5-6)
 윤순의(7) 신기수(7-8) 이규주(1-6) 김옥녀(7)
 전문자(7) 문아영(4-6) 차영화(6-7) 김원조(7-12)
 김민규(5-6) 허동원(7)

< 성소후원금 > \$590

정병구(7-8) 박영실(7-8) 채용분(7) 조진행(1-5)
 이규주(1-6) 차영화(6-9) 채성일(1-12)

< Bishop's Appeal >

박영실(7-8)

< 감사헌금 > -

~~~~ 오늘 간식은 배데레사 가정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양 -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 대건산악회 : 매주 화요일/문의 : 510-847-3014
- \* 재정위원회 : 오늘 교중미사 후 유아실 옆 회의실
- \* 구역장회의 : 7월 27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사진동호회 모임

- 일시 : 7월 27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주제 : 인터넷에 사진 올리기
- \* 동호회 회원 아닌 분들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빈첸시오 홀리스 식사 제공 봉사

- 일시 : 7월 24일(목) 오후 4시
- \* 봉사해 주실 분은 친교실 게시판에 있는 싸인업 양식에 기재해 주십시오.

◆ 대건장학회 신청 접수(친교실)

- 신청일시 : 6월 8일 ~ 7월 27일
- 장학금 수여식 : 8월 17일
- 문의 : 허석진 프란치스코 510-406-0588  
oakcc.scholarship@gmail.com

◆ 주일학교 여름 캠프

- High School Camp(incoming 10th to 13th graders)  
: July 27 ~ July 30(costs \$180)
- Junior High Camp(incoming 6th to 9th graders)  
: July 30 ~ August 1(costs \$145)
- \* \$20 sibling discount
- 문의 : campdirectors@gmail.com

◆ 향심기도 피정

- 일정 : 8월 15일(금) 저녁 7시 - 8월 17일(일)
- 장소 : Danville San Damiano 피정 센터
- 지도 : 이승구 신부님(서울교구 향심기도 사목담당)
- 비용 : 2인 1실(\$230), 1인 1실(\$280)
- 문의 및 신청 : 김명환 안드레아 925-262-7094

7월 구역모임 고린도전서 9-10장

|        |             |                        |
|--------|-------------|------------------------|
| 1 구역   | 7월27일(일) 6시 | 최재준 토마스 맥              |
| 2 구역   | 7월27일(일) 6시 | 김종성 바오로 맥              |
| 7-1 구역 | 7월26일(토) 2시 | 파운더스룸                  |
| 7-2 구역 | 7월26일(토) 6시 | 성당 교육관                 |
| 8-1 구역 | 7월26일(토) 5시 | 조진행 바실리오 맥             |
| 8-2 구역 | 7월20일(일) 6시 | UC Village Cross Rd. # |
| 10 구역  | 7월20일(일)미사후 | 교육관 106호실              |

◆ 제 20 차 북가주 성령대회

- 일시 : 8월 9일(토) 오전 8:30 - 오후 6:00
- 주제 :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 강사 : 차동엽 로베르또 신부님
- 장소 : 새크라멘토 정혜 엘리사벳 한인 천주교회
- 참가비 : \$25(Pay to the order of KSCNC)
- 접수 : 천종욱 다니엘 510-684-7207
- \* 단체 버스로 가실 분들은 미리 예약하여 주십시오.  
(버스비 : \$10, 환불 불가)

◆ 조진행 바실리오 형제님께서 지난 주 이틀에 걸쳐서 친교실 의자와 문, 벽 등을 자비로 도색작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 마리아 막달레나(7/22) : 이선희
- \* 안나(7/26) : 구혜순, 김화순, 김영숙, 소화옥  
고연석, 이순자, 황정희, 허경림  
강신옥

안국학교 소식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 정인경 가브리엘라 415-517-3544
- 개강 : 9월 6일
- 등록비 : \$300/1년(교재, 행사참가비 포함)